



[산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국 전선서 전기차 사업 논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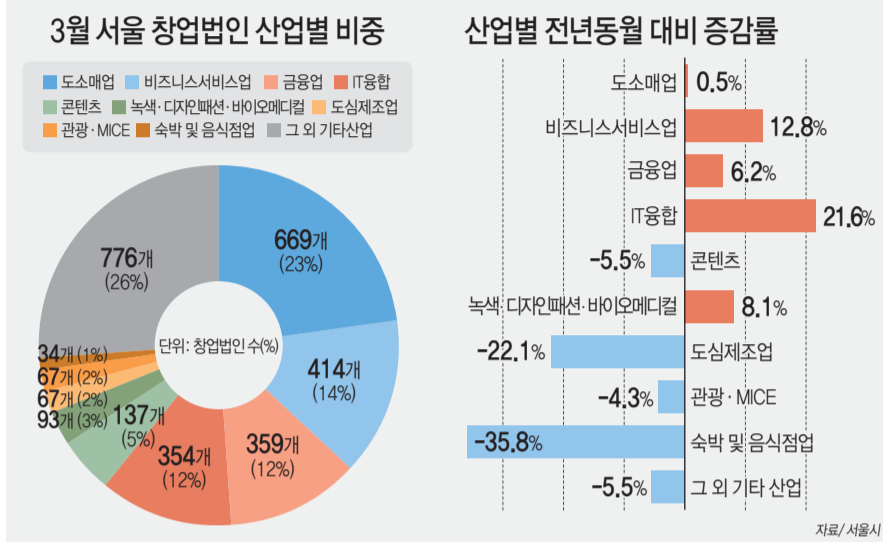
Life

[산업] 현대모비스 주주친화정책 세가지 방안 발표 05



서울, 3월에만 2970개 창업... 일자리 1만3166개 생겼다

서울시, 도소매·IT 산업 창업 늘고 숙박·음식점업·도심제조업 줄어 권역별 일자리 동북권↑ 서북권↓



서울시에서 3월 한 달간 2970개의 법인이 신설돼 1만316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비즈니스서비스·금융·IT융합 등 주요 4개 산업이 창업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창업 법인과 일자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개발해 발표했다.

시와 연구원이 개발한 지표는 중소기업부의 '신설법인 동향'과 달리 산업별·세부지역별로 서울의 창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월 한달 동안 창업한 법인은 2970개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산업

별로는 도소매업이 669개로 가장 많았고, 비즈니스서비스업 414개, 금융업 359개, IT융합 354개 순이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IT융합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 상승했다. 비즈니

스서비스업은 12.8%, 녹색/디자인·패션/바이오메디컬은 8.1%, 금융업은 6.2%, 도소매업은 0.5%로 뒤를 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35.8%, 도심제조업은 -22.1%로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127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남권 840개, 동북권 330개, 도심권 311개, 서북권 216개 순이었다.

5대 권역별 중 동북권(20%)과 서남권(3%)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증가했지만, 서북권(-15%), 동남권(-15%), 도심권(-11%)은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북권에 속하는 성북구(28%), 광진구(24%), 중랑구(20%), 성동구(16%), 노원구(12%)에서 창업기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에 따르면 3월 법인 창업으로 총 1만 316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법인창업지수는 1.5% 증가했지만,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감소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도소매업의 일자리 감소와 법인 평균종사자수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금융업의 일자리 감

소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3029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금융업이 1856명, 비즈니스서비스업이 14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창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줄어든 산업은 숙박·음식점업(-34%)과 도심제조업(-33%)이었다. 반면, 녹색/디자인·패션/바이오메디컬(14%), 비즈니스서비스업(13%), IT융합(4%)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동북권(20%), 서남권(3%)에서는 증가했고, 서북권(-15%), 동남권(-15%), 도심권(-11%)에서는 감소했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지표 개발을 통해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현황자료로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소방시설 주변 '잠깐 정차'도 즉시 단속

서울시,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 강화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부터 소방 시설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부터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 시설 5m 이내에 잠깐의 정차도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는 자치구,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도 진행한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이 차량정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C-페스티벌 2018' 개막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페스티벌 2018' 개막식에서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홍보대사 몬스타엑스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 시공기준, 정부 코드에 맞춰 개편

토목·건축·조경 등 7개 분야 재구성

서울시는 발주 공사의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되는 '전문시방서'를 정부의 표준시방서에 맞춰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전문시방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지침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공사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분야는 ▲토목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총 7개다.

시는 지난 2000년 제정해 각 분야별로 운영해오던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정부가 2016년 마련한 '표준시방서 통합 코드(KCS)' 체계에 맞춰 재구성했다.

시는 정부 체계에 따라 전문시방서를 3개 분야(공통, 시설물, 사업), 14개 공사, 총 865개 코드로 구성했다.

아울러 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시방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현장활용서'도 함께 마련했다.



공사 현장 이미지. /픽스타

코드화된 서울시 전문시방서는 3일 시보 고시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최신 기술지침을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시방서에 코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덕수궁 돌담 따라 역사여행... 정동 일대에서 '봄 밤' 즐겨보자

서울 중구, 11~12일 정동야행 개최



구 러시아공사관 야간경관. /서울 중구

밤학기마저 영롱한 5월, 정동 일대에서 역사와 문화의 밤을 만끽해보는건 어떨까.

서울 중구는 11~12일 정동 일대에서 '세계를 품고 정동을 누비다'를 테마로 정동야행을 개최한다. 정동야행에는 시설 야간 개방과 함께 문화행사, 정동 도보 투어, 덕수궁 돌담길 체험프로그램, 거리 공연, 정동 야경관광, 예술 장터 등이 마련됐다.

정동야행은 11일 오후 6시 근대복식 퍼레이드인 '정동야인'을 시작으로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공식 개막식을 진행한다.

올봄 정동야행에는 덕수궁, 시립미술관, 정동극장, 서울역사박물관 등 역대가장 많은 38개 역사문화시설이 야간 개방

에 참여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구는 개방된 시설을 돌면서 행사 리플릿에 7개 이상의 도장을 찍어오거나 '중구 스토리 여행' 앱을 통해 7개 이상의 발도장을 받아 온 관람객들에게 캘리그래피 기념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탬프

3개를 받으면 인근 60여개 음식점에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동야행의 간판 행사인 고궁음악회는 이틀간 덕수궁의 밤을 밝힌다. 11일 오후 7시에는 국악소녀 송소희, 가수 정동하, 천단비 등이 출연해 흥겨운 국악과 감미로운 발라드로 고궁의 밤을 물들인다.

고종이 머물며 대한제국의 상징이 된 덕수궁 석조전은 축제기간 오후 6시와 7시, 총 4회 연장 개방한다.

정동야행이 처음인 방문객은 정동야행 홈페이지에 소개된 4개의 추천코스를 참고해 불만하다. 코스로는 음악 콘텐츠를 따라 즐기는 '열린 정동음악회',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은 '정동테마기행' 등이 마련되어 있다. /김현정 기자